

 금융위원회	보 도 참 고 자 료			 금융감독원
	보도	배포 시부터 즉시	배포	
책 임 자	금융위 자산운용과장 안 창 국(02-2156-9890)		담 당 자	송 용 민 사무관 (02-2156-9899)
	금감원 일반은행국장 민 병 진(02-3145-7050) 금감원 금융투자국장 한 윤 규(02-3145-7010)			박 상 원 팀장 (02-3145-7055) 윤 덕 진 팀장 (02-3145-7035)

## 제 목 : '16.5.9일 연합뉴스 중 "은행권 개설 ISA 4개 중 3개꼴 1만원 이하 '깡통계좌'" 관련

### < 보도 내용 >

□ 연합뉴스는 “은행권 개설 ISA 4개 중 3개꼴 1만원 이하 ‘깡통계좌’” 제하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 은행 개설 전체 계좌의 74.3%에 해당하는 101만3천600여개는 가입 금액이 1만원 이하인 사실상 ‘깡통계좌’...100원 이하가 예치된 초소액 계좌도 2.0%인 2만8천100여개에 달함

### < 참고사항 >

#### 가. ISA계좌별 가입금액 분포 현황

- 3.14~4.15일간 개설된 ISA계좌별 가입금액 분포를 파악한 결과, 1만원 이하 소액계좌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만원 이하 70.8%(100원 이하 2.5%, 100~1천원 7.6%, 1천원~1만원 60.6%), 1만~10만원 17.3%, 10만~1백만원 5.4% 등

#### ISA계좌 가입현황(3.14~4.15)

(단위 : 만좌, 백만원, 비중은 계좌수 기준(%))

구분	은행			증권			합계		
	계좌수	금액	비중	계좌수	금액	비중	계좌수	금액	비중
1만원 이하	101.3	8,856	74.3	5.2		36.4	106.5	9,202	70.8
100원 이하	2.8	1	2.0	1.0	-	7.0	3.8	1	2.5
100원 ~ 1천원	10.7	107	7.9	0.8	8	5.6	11.5	115	7.6
1천원 ~ 1만원	87.8	8,748	64.5	3.4	336	23.8	91.2	9,084	60.6
1만원 ~ 10만원	22.8	15,054	16.7	3.3	2,946	23.1	26.1	18,000	17.3
10만원 ~ 1백만원	6.7	31,697	4.9	1.4	8,021	9.8	8.1	39,718	5.4
1백만원 ~ 1천만원	3.2	168,923	2.3	3.2	163,793	22.4	6.4	332,716	4.3
1천만원 초과	2.2	406,632	1.6	1.2	212,659	8.4	3.4	619,291	2.3
합계	136.2	631,162	100	14.3	387,764	100	150.5	1,018,926	100.0

#### 나. 소액계좌가 많은 이유 및 평가

□ 소액계좌가 많은 것은 ① ISA상품 특성, ② 금융회사의 영업전략, ③ 금융회사 영업전략과 맞물린 가입자의 다양한 이해관계 등이 반영된 결과

- ① ISA는 의무가입기간이 길고(3~5년) 가입기간 중 계속 납입이 가능한 장기상품으로서 초기에 투자자금을 모두 넣기보다는 나누어 넣는 것이 일반적이고 영국 등 외국사례 등도 이러한 경향을 보여줌

\* 영국의 경우, ISA 출시 다음해인 '00년도에 계좌수는 21% 상승(9,278→11,259천개)한 반면, 납입규모는 253% 상승(8,430백만 £→29,778백만 £)하여 ISA 출시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입금액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② '1인 1계좌' 제한이 있는 ISA의 특성을 감안하여 최소납입금액 수준을 낮게 설정(대부분 1원~1만원)하는 등 가입금액이 작더라도 우선 가입시키려는 금융회사의 계좌선점 영업전략이 작용

- ③ 청탁성계좌, 대기계좌, 소액 적립계좌로 이용하려는 가입자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반영

- **청탁성계좌** 성격으로서 은행 직원의 권유 등에 따라 가입하면서 가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액만 납입한 계좌
- **대기계좌** 성격으로서 의무가입기간을 고려하여 일단 계좌개설 후 두고 보다가 투자대상 등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 이후에 투자하려는 고객의 계좌
- **소액 적립계좌**로서, 앞으로 월급, 여유자금 발생 등에 따라 **적금처럼 매월 적립**해 나가려는 계좌

□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소액계좌**는 향후 가입자의 판단과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가입금액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계좌별 누적 평균가입금액을 보면, 출시 당일 34만원이었으나, 추가납입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4.29일 기준)는 74만원 수준에 이르는 등 **자산관리계좌로 활용**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다. ISA 계좌별 가입금액 추이와 향후 전망

① ISA 출시 이후 7주 동안(3.14~4.29) 약 178만 계좌, 1.3조원 가입

- 초기 변동성은 있었으나, 넷째주 이후 주별 가입규모는 약 10~20만 계좌, 1,500~1,800억원 내외로 유입되면서 어느 정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화되어 가는 모습

② 신규 계좌의 경우 1만원 이하 소액계좌 비중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

- 신규개설 계좌 중 소액계좌 비중이 (출시 첫째주, 3.14~3.19) 77% → (출시 둘째주~다섯째주, 3.18~4.15) 66% → (출시 일곱째주, 4.25~4.29) 63% 등 소액계좌 비중이 점차 감소

③ 기존 소액계좌의 경우도 상당수가 추가납입이 이루어짐에 따라 가입금액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기존에 개설된 ISA계좌 중 약 11%는 자동이체가 연결되어 있는 등 추가납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

\* 출시 첫째주 개설된 계좌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개설당시 1만원 이하 소액 계좌 비중이 77%였으나, 당해 계좌에 계좌개설 이후 추가납입 등이 이루어진 결과 4.29일 기준으로는 6%p가 감소하여 71% 수준으로 하락

④ 특히, 6월 수익률 비교공시가 이루어져 ISA 운용에 따른 수익률 수준이 공개되고 금융회사별 비교가 가능해지는 경우

- 대기계좌를 중심으로 추가 자금유입이 이루어지면서 소액계좌 비중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a href="http://www.fsc.go.kr">http://www.fsc.go.kr</a>	<b>금융위원회 대변인</b> prfsc@korea.kr	 넓게 들으십시오 바르게 알려드립니다
---	--	------------------------------------	--